

벨지움의 중등학교 지리교육 내용과 교사양성제도

—프랑코폰 공동체를 사례로—

곽 철 홍*

본 연구는 벨지움의 프랑코폰 공동체를 사례로 중등학교 지리교육의 내용과 교사양성의 실태를 일반 교육체계의 범주에서 고찰하였다. 중등학교 제1단계에서는 주당 2시간씩 환경교육을 학습하는데 그 내용은 생활주변의 지리적 지식을 관찰 정리하는 것이고, 제2단계에서는 주당 1시간씩 세계 지리를 학습하며 특히 유럽과 러시아에 큰 비중을 둔다. 제3단계에서는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를 계통적으로 학습한다. 교실수업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교과서는 없고 교사가 텍스트를 준비하여 학습에 임하고 있으며 학생 중심의 탐구식 수업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급중등교사는 교육 전문학교에서 복수전공교사로 양성되는데 지리교사는 생물·화학·지리교사 또는 역사·사회·지리교사의 유형으로 양성되며, 상급중등교사는 종합대학의 교직과정부에서 단일전공교사로 양성된다. 중등학교 현직교사를 공식적인 실습지도교사로 임용하고 교생들의 책임수업과 평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등 교육실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과 교수들은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심사에서 합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사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우리 나라의 지리교육과 교사양성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요어 : 환경교육, 복수전공교사, 교육프로그램

1. 서론

1) 연구목적과 자료수집

우리 나라의 근대 학교교육은 일제 식민지시대에 시작되었으나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대부분 서구의 것들을 도입한 것이며, 마찬가지로 지리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이를 지도하는 지리교사의 양성제도도 그 근원을 서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리교과는 학생들에게 국제화·세계화를 위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며,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과 개발 및 보전을 강조하고, 나아가 애국심을 함양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서구의 많은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지리를 핵심 교과로 취급하여 왔다. 최근에 학문 분야가 다양해지고 국가마다 지

향하는 정책의 이념과 방향에 따라 지리교육의 중요성과 내용 및 방법을 달리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인 틀에서는 상당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근대 지리교육의 원천이 되는 서구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리교육의 내용과 교사양성의 실태를 고찰하고 이를 우리 나라의 지리교육과 교사양성 업무에 비교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벨지움의 프랑코폰 공동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행 중등학교 지리교육의 내용과 교사양성의 실태를 고찰함으로써 서부유럽 국가의 중등학교 지리교육의 성격을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하려는 것이다. 각 교과별 교육내용은 전체적인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벨지움 중등학교의 일반

* 경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지리전공 교수, 경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연구원

적인 교육제도의 범주 내에서 지리교육 내용과 교사양성제도를 고찰할 것이다. 벨지움의 중등학교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학생수에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과별 시간배정을 포함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의 상당 부분을 달리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들 모두를 조사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필자가 1997년 8월부터 1년간 벨기에 Liège대학에 체류하면서 현장에서 수집한 것이다. Liège대학 지리학과 학생들의 교직 과목 수업과 교육실습을 현장에서 관찰하였으며, Liège시내의 중등학교를 방문하여 지리교사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면담을 통하여 학습지도와 교직생활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2) 연구지역

벨지움의 면적은 30,500km²이고 인구는 1,080만 명으로 우리 나라의 영남지방과 거의 비슷한 규모이며, 서부는 북해를 사이에 두고 영국과 마주하고, 북부는 네덜란드, 남부는 프랑스, 동부는 룩셈부르크 및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벨지움은 행정적으로 남부의 왈롱지역(Région Wallonne), 북부의 플라망지역(Région Flamande), 중앙부의 수도권지역(Région de Bruxelles-capitale)으로 구성되는 연방체제의 입헌군주국이다.

벨지움의 교육제도와 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언어정책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래 네덜란드 남부지역이었던 벨지움은 오랫동안 스페인과 합스부르크가의 지배를 받아 오다가 1795년 나폴레옹 전쟁으로 프랑스에 귀속되었다. 1815년에는 비엔나조약으로 다시 네덜란드로 귀속되었으나 그때부터 계속된 독립운동으로 1830년 네덜란드로부터 분리·독립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 의해 벨지움의 북부지방 주민들은 네덜란드어, 남부지방 주민들은 프랑스어, 동부지방의 약 7만 주민들은 독일어를 사용하며, 수도권지역은 주민들의 80%는 프랑스어, 20%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매우 복잡한 언어적·문화적 요소들로 구성되었다. 필수적으로 단일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학교교육의 입장을 포함하여, 벨지움은 주민들의 언

어문제가 국가의 사회적 통합에 가장 큰 장애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0년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국토를 주민들의 언어분포에 따라 프랑코폰 공동체(Communauté Française)와 플라망 공동체(Communauté Flamande), 그리고 비록 약 5만명의 소수 인구가지만 게르마노폰 공동체(Communauté Germanophone)로 구분하고, 이들 3개 공동체의 행정부가 각각의 교육과 문화사업을 독자적으로 관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연방을 구성하는 지역(Région)들이 갖는 의회 및 행정부와는 별도로 공동체(Communauté)들도 독자적으로 의회와 행정부를 구성하여 교육과 문화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이와 같이 벨지움은 단일 국가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독자적 언어를 사용하는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은 행정적, 교육적, 문화적 제도를 서로 달리하며 상호간에 교류도 활발하지 못하다. 벨지움은 이러한 국가조직의 특성으로 각종 통계를 비롯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공식적 자료들이 공동체별로 그들의 고유 언어로 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 단위의 자료조사는 3개 공동체 모두를 조사하여 종합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문화적으로 보다 발전된 지역으로 알려진 프랑코폰 공동체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프랑코폰 공동체는 벨지움의 남부지역과 수도권지역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의 지리적 범위와 인구는 각각 전국의 55%, 42%를 차지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프랑코폰 공동체의 각종 교육관련 통계수치는 벨지움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공동체들간에는 상당한 제도상의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연방정부의 조정과 중재로 중요한 분야에서는 보조를 같이하고 있어 벨지움 중등교육의 총체적 경향을 파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중등학교의 교육체제와 지리교육 내용

1) 교육체제

벨지움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6년으로 조직된다. 학생들은 학업성적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초등학교에서 1년, 중등학교

에서 1~3년씩 유급될 수 있다. 중등학교는 1970년 까지는 수학기간 6년을 3년씩 2단계로 구분하여 하급중등학교(중학교)와 상급중등학교(고등학교)로 구분하였다. 1971년부터는 교육개혁법에 따라 중등학교 수학기간 6년을 2년씩 3단계로 구분한다. 제1단계는 공통과정이고 제2단계부터는 일반과정, 기술과정, 예술과정, 직업과정으로 구분되어 각각 상이한 내용의 교육을 받게 된다. 프랑코폰 공동체에서 Athénée의 명칭을 갖는 학교는 1-2-3단계 또는 2-3단계의 학생들을, Lycée는 1단계 또는 1-2단계의 학생들을 수용하는 공립학교이며, Institut technique는 중등교육 수료후 취업을 목표로 하는 기술과정과 직업과정의 학생들을 수용하는 국·공립학교이다. 사립학교는 Collège로 불리며 대부분 1-2-3단계와 모든 과정을 함께 수용한다. 단계별 교육체제는 다음과 같다.

(1) 관찰단계(degré d'observation)

학생들은 1~2학년 동안 수업을 받으면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한다. 이 단계에서는 교육상담요원들과 심리·의료·사회요원들이 학생들의 2단계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들의 학교생활과 학업성적을 면밀히 관찰한다. 초등학교에서 유급이나 질병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학업이 부진했던 학생에 대해서는 1년간 특별 교육프로그램이 조직되는데 약 10%의 학생들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의 대부분은 2학년 때 조직되는 직업과정에 편성된다. 단계 말에 성적이 불량한 학생은 수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년간 유급된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의 수업시수는 주당 30~32시간이며, 이들 중 공통교과가 27~28시간이고 선택교과는 3~4시간이다. 지리과목은 공통교과에 속하며 수업시수는 주당 2시간이다.

(2) 진로단계(degré d'orientation)

관찰단계 2년을 마치고 3학년에 진입하면 학생들은 4개의 교육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일반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일반과정, 기술대학 진학 또는 기술계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기술과정에, 예술대학 진학 또는 예술계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예술과정, 졸업후 바로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직업과정으로 편성된다. 담임교사와 수업위원회는 관찰단계에서 조사한 학생의 적성과 희망, 학업성적, 교육상담요원과 심리·의료·사회요원의 의견들을 종합하고, 이를 학부모와 협의하여 학생의 교육과정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의 결정은 수업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동의하여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는데,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수업위원회의 추천을 따른다. 만약 의견이 대립되면 학교장이 학부모와 상담한 후 최종 결정한다.

이러한 절차로 결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은 상이한 교육프로그램에 의거 교육을 받게 되는데, 진로단계에서는 관찰단계에 비해 공통교과가 축소되고 과정별 선택교과가 증가한다. 만약 학생이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단계의 마지막 해(4학년 말)에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직업과정의 학생이 진학목표의 일반과정이나 기술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1년간 재수해야 한다. 이것은 상이한 교과목 이수를 일치시키는 조건이기 때문에 1년간의 학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프랑코폰 공동체의 1997~98학년도 중등학교 진로단계의 과정별 학생 비율을 보면, 학생들의 58%가 진학과정을 선택하고 42%가 취업과정을 선택하고 있어, 우리 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것과는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의 주당 수업시간은 32~34시간이며 관찰단계에 비해 공통교과가 감소하고 그만큼 선택교과가 증가한다. 학생들이 선택한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배정이 결정된다. 또한 동일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진학과 취업 중 어느 분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교과목 배정이 달라진다.

(3) 확정단계(degré de détermination)

5~6학년으로 구성되는 이 단계는, 학생이 선택한 교육과정이 확정되어 과정별로 심화학습이 이루어지며 선택교과가 크게 증가하고 공통교과는 극히 축소된다.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과정과 기술과정 학생들에게는 수학, 과학, 현대어에 학습시간이 집중된다. 취업을 목표로 하는 기술과정과 직업과정의 학생들은 졸업 후 기술자격증 획득을 위

벨지움의 중등학교 지리교육 내용과 교사양성제도

한 시험에 응시하거나, 보다 높은 단계의 기술자격 증 획득을 위해 1년간의 보충과정을 이수할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는 과정 변경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진학반이나 취업반의 동일 교육과정 내에서 1년간의 수학기간 차이를 두는 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 단계의 초기(5년차)에 진학목표의 일반과정과 기술과정 학생들은 진학희망계열을 선택하며 그에 따라 교과배정이 결정된다. 공통교과는 종교·도덕(주당 2시간), 프랑스어(5), 역사(2), 지리(1), 체육(3)으로 모두 주당 13시간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19~22시간은 선택교과인데 어떤 계열이냐에 따라 교과목이 달라진다. 학생들은 과학계열, 문계열, 경제계열, 인문계열, 체육계열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교과를 선택해야 한다. 교과목과 시간수는 매우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는데, 선택교과들은 수학, 제2언어, 제3언어, 제4언어, 물리, 화학, 생물, 라틴어, 역사, 지리, 사회, 경제, 예술, 정보, 스포츠, 타이핑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같은 교과목이라도 시간수의 선택 폭이 다양하다.

이상과 같이 벨지움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등학교 교육체제의 특성은 학생들의 진로를 보다 명확하고 유연하게 지도하도록 조직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학생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업목표 학생들을 위한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취업에 필요한 양질의 지식과 기능을 습득케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실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계수리공, 기계조립공, 금속공, 의류봉제공, 사무실건축공 등으로 세분해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 발급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졸업 후 바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자율성을 갖춘 시민으로서의 인격양성을 위해 직업과정과 예술과정을 포함한 모든 과정에서 종교·도덕, 프랑스어, 수학, 역사, 지리, 외국어, 체육 등 일반 교양교육을 강조한다.

2) 지리교육의 내용

벨지움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학생수가 비슷하고 교육이념과 방법을 서로 달리하고 있으며 공동체 교육부에서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육과

정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립학교의 지리교육을 관찰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부득이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에 언급되는 학습내용들은 교육부의 교육프로그램에 명시된 학습 내용과 지도방법을 학습단위 중심으로 발췌한 것이다. 벨지움의 중등학교에서는 대부분 교과목이 별도의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교육부의 프로그램에 제시된 지침서를 기초로 교사가 학습내용을 준비한다. 따라서 교실수업에서의 구체적인 주제와 내용은 교사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벨지움의 중등학교 교육체제는 다양한 과정별로 분화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진학계열에 속하는 일반과정과 기술과정의 공립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관찰단계(1~2학년)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과정별 선택이 없고 공통으로 2년간 이수한다. 지리교과의 명칭은 '환경교육'이며 수업시간은 주당 2시간으로 2년간 학습한다.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모두 11개 단원으로 구성되는데 단원명을 보면 식량, 주거지와 주택, 의복, 타인과의 관계, 제조업과 공산품, 향토지역, 생활과 건강, 여가활동, 교통과 교역, 인류와 세계, 인구와 국가 등이다. 단원별 세부 항목을 보면 환경교육의 내용들이 대부분 지리적 지식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등학교에 환경교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교과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이의 지도를 어느 교과에서 담당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들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위와 같은 벨지움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진로단계(3~4학년)

이 단계에서 지리과목의 수업시간은 종전에는 주당 2시간이었으나 1983년 교육개혁 이후 주당 1시간으로 축소되었으며 학습내용은 세계지역지리이다. 대학진학을 목표로 편성된 일반과정과 기술과정의 교육프로그램에 의하면, 3학년의 지리교과 명칭은 '유럽공동체와 러시아의 경관과 생활'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유럽과 러시아의 위치, 유럽공

동체와 러시아의 자연지리적 경관, 유럽의 인문지리적 특색, 유럽공동체의 성립과 국가 구성, 러시아의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등 5개 단원으로 구성된다. 4학년에서는 미국, 일본, 브라질, 중국,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의 지지학습을 하게 되는데,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에서는 각 1개 국가를 선정하여 학습하는데, 주로 콩고와 오스트레일리아를 선택한다. 이들 국가에 대하여 지리적 위치와 영토의 확대, 자연환경의 특색, 중요 산업지역과 도시(농업, 공업, 관광), 교통과 인구, 세계 다른 지역과의 정치적·경제적 관계를 학습한다.

(3) 확장단계(5~6학년)

이 단계에서 지리교과는 공통과목에 속하여 모든 과정의 학생들이 주당 1시간씩 이수한다. 그러나 인문·사회계열의 대학 진학을 선택한 심화과정의 학생들은 이와는 별도로 주당 4시간을 추가로 학습하게 된다. 교육프로그램에 기록된 교과내용을 보면, 5학년에서의 교과 명칭은 '자연지리 일반'이며, 천문학, 대기와 기후의 개념, 지형과 지질, 순환자원으로서의 물 등 5개 단원으로 구성된다. 6학년에서의 교과 명칭은 '인문지리 일반'이며, 인구문제, 도시공간, 촌락공간, 공업공간과 교통, 지역과 인구 등 5개 단원으로 구성된다. 이상의 계통지리 학습을 단원별로 제시한 지침서를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학습을 요구하고 있다.

(4) 교과서와 교재

프랑코폰 공동체의 중등학교에서는 1983년 교육개혁 조치 이후 대부분 교과목에서 교과서가 없어졌다. 지방분권적 교육체제는 지방 나름대로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인 교육 실천의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한 특성이다. 그래서 교과서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생활환경과 조건, 학력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저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더구나 교사들은 그들의 기호에 따라 수업내용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교과서를 개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프랑스어 사용 인구가 적어 출판사 입장에서는 교과서 소비시장이 너무 협소하다.

이에 교사들은 교육부의 교육프로그램에 제시된

안내 지침에 의거하되, 자신이 담당하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과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그에 적절한 학습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수업에 임하고 있다. 교과서가 없어짐으로 해서 특히 신규 교사들의 수업준비가 어려워졌다. 교사들은 그들 자신의 강의노트를 정리하고 학생용 텍스트를 마련하여 복사 배부하고 이를 토대로 수업해야 하는데, 훌륭한 강의노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교과 내용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수년간의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은 교사가 배부하는 텍스트가 유일한 공식교재이며, 이들 산만한 유인물을 정리하여 수강노트와 실습노트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지리학습의 경우에는 다행히 거의 모든 학교가 고정된 지리교실을 마련하고 있어, 지리교사들이 학습자료를 휴대하고 교실을 이동할 필요가 없으며, 지리교실에는 OHP, TV, 비디오, 지도, 사진, 모형, 그래프 등 학습에 필요한 장비와 자료들이 풍부히 마련되어 있어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5) 수업형태

벨지움 교육부는 오늘날의 교육이 엘리트만이 아니라 지능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며 자신의 능력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식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분화하는 현 세계에서 누구도 모든 지식을 다 습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익힐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며, 따라서 수업의 형태도 교사위주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위주의 공부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선생이 가르치면 학생은 배워야 한다는 과거의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벨지움 교육부는 교육프로그램을 매 5년마다 재조직하여 발표하는데, 여기에는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들을 자세하게 명시하지 않는 대신에 학생들이 교육을 받은 후에 성취되어야 할 내용, 즉 학습목표들을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교사는 이들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조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업형태를 독창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수업의 실제에서, 교사는 우선 학습주제에 대한 동기유발에 이어 미리 준비한 1~2쪽의 텍스트를 나누어주고 학생들로 하여금 10분 정도 읽고 생각해 한 다음, 교사의 질문과 학생의 대답 또는 학생의 발표를 통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교사와 학생들의 토론으로 이를 증명하여 채택 또는 기각하면서 결론으로 이끌어 가는 이른바 탐구식 방법의 수업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업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가설을 착상하는데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되는 내용을 풍부한 사례를 통해 알려주면서 바른 대답이 나올 때까지 난이도를 달리 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진다. 학생들이 제시하는 가설들을 일단 모두 흑판에 판서하고, 이어서 이들 중 채택할 것과 기각할 것을 학생들과 함께 검토하면서 토의하고 종합적으로 보충·설명한다. 중요한 부분에서는 지도, 도표, 그림 또는 사진 등의 학습매체를 동원하여 이해를 도와준다. 이러한 과정으로 채택된 가설들의 상호관련성을 검토하고 이들을 종합·정리하여 자연스럽게 결론으로 이끌어 가는데, 이들이 바로 학습목표의 내용이 된다. 이러한 수업형태는 무엇보다도 학급당 학생수가 적어서(대부분 20~30명)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다. 수업시간을 통해서 질문·대답이나 발표에서 제외되는 학생은 거의 없다. 학생들의 학습활동은 매우 활발하며 자신의 의견을 거리낌없이 발표한다. 교사는 간혹 말없이 앉아있는 학생을 그냥 두지 않고 질문에 답하거나 발표하도록 유도해서 학습활동에 참여시킨다. 여러 학교의 지리수업 현장을 통하여 관찰한 중등학교 상급학년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우리 나라 동급 학생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교육전문학교의 하급중등교사 양성과정

벨지움의 교사양성은 두 개의 교육기관에서 행하여지는데, 유아학교교사, 초등교사, 하급중등교사(중학교교사)는 3년제 교육전문학교에서 양성된다. 상급중등교사(고등학교교사)는 전공 교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4년제 종합대학의 교직과정부에서 양성한다. 학교급별로 교사의 호칭에도 차이를 두고 있는데 유아학교교사와

초등교사를 *Instituteur*, 하급중등교사를 *Régent*, 상급중등교사를 *Professeur*로 호칭한다. 벨지움의 현행 중등교육제도는 1971년의 교육개혁에 의거하여 2년간씩 3단계로 구분되는 신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비하여 교사는 아직도 그 이전의 구체제에 맞추어 양성되고 있다. 따라서 중등학교 학생들은 제2단계의 1차년도(3학년)까지는 하급중등교사가 지도하고 2차년도(4학년)부터는 상급중등교사가 지도하는데, 이러한 학습지도 영역의 구분은 매우 엄격하다.

1) 교사양성제도의 변천

벨지움의 교사양성 전문기관인 교육전문학교의 발전과정은 외형적으로 보아 우리 나라의 교육대학교 발전과정과 비슷하다. 1956년까지 유아학교교사, 초등교사, 하급중등교사는 3년제 사범학교에서 양성되었다. 하급중등학교 수료자가 입학하는데 사범학교는 상급중등학교 수준이었다. 1957년부터 사범학교의 수학기간이 1년 연장되어 4년제가 되고, 교과편제는 처음 2년간은 상급중등학교와 동일한 일반교과에 할당되고 후기 2년간은 교직과목과 교육실습에 집중적으로 충당되었다. 4학년말에 국가에서 파견한 시험관 감독 하에 실시하는 졸업시험에 합격하면 대학입학자격증과 함께 교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었다. 1967년부터 사범학교의 수학기간이 다시 1년 연장되어 5년 과정이 되었다. 교육과정을 1·2기로 나누었는데, 제1기 과정은 3년 동안 상급중등교육과 비슷한 교과목을 이수하되 음악, 미술, 체육, 공예, 가사 등에 비중을 크게 두었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대학입학자격증과 함께 제2기 과정으로 진급이 허용되었다. 제2기 과정 2년간은 교직과목과 교육실습에 집중적으로 충당되었으며, 과정 수료 후 시험을 거쳐 교사자격증이 부여되었다. 1974년에 사범학교가 2년 과정의 교육전문학교로 승격하게 되었고 중등교육 6년 수료자가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1984년부터 교육전문학교의 수학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전공별 교사양성

교육전문학교에서는 유아학교교사, 초등학교사, 하급중등학교사를 양성하며, 최근에는 과거 기술전문학교에서만 양성하던 중등기술교사의 일부도 담당한다. 입학자격은 중등교육을 마치고 상급중등교육수료증이나 고등교육진학자격증 소지자에게 허용되며 모집인원의 제한은 없다. 별도의 입학시험은 없으나 과정별로 면접이 실시되며, 하급중등교사 과정의 체육전공과 미술전공 응시자는 적성실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면접에서는 교사 후보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혐오감을 주는 용모와 모국어 구사에 문제가 있는 응시자들은 탈락될 수 있다. 입학시험이 없는 대신 학년별 유급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상당수 학생들이 2학년 진급에서 탈락된다. 모든 과정의 학생들은 교육실습을 마치고 3학년에 교육에 관한 독창적인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과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1994~95학년도에 프랑코폰 공동체에 설치된 교육전문학교에 등록된 과정별 학생수는 아래와 같다.

- 유아학교교사 과정 3,864 (25.3%)
- 초등학교사 과정 5,273 (34.6%)
- 하급중등교사 과정 4,578 (30.0%)
- 중등기술교사 과정 498 (3.3%)
- 교육행정사 과정 1,040 (6.8%)
- 교육전문학교(합계) 15,253 (100%)

유아학교교사 및 초등학교사 과정과는 달리, 하급중등교사 과정은 14개 전공으로 구분하여 양성된다. 즉, 프랑스어·역사전공, 프랑스어·도덕전공, 네덜란드어·영어전공, 네덜란드어·독일어전공, 영어·독일어전공, 수학·물리전공, 수학·경제전공, 수학·도덕전공, 물리·화학·생물전공, 지리·화학·생물전공, 지리·역사·사회전공, 체육·여가지도전공, 미술전공, 교육상담전공으로 구분된다. 단일 교과목이 아니고 2~3개 교과목을 함께 전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전공분야는 교육전문학교에 따라 14개 전공 모두를 개설한 학교도 있고 5~6개 전공만 개설한 학교도 있다. 하급중등교사의 자격증 표시도 수학교사가 아니고 수학·물리교사 또는 수학·경제학교사가 되며, 학교에서 담당하는 교과목도 단일 교과를 담당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일반적으로 2~3개 교과를 담당한다. 지리교사의 경우,

자연계 교과인 화학·생물을 겸하는 지리교사와 인문·사회계 교과인 역사·사회를 겸하는 지리교사로 구분된다. 이는 소규모 학교들이 많은 벨지움의 중등교육에서 과목별 교사 배치의 유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한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하급중등교사의 전문성 결여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3) 과정별 교과편제

다음은 Liège에 위치한 Rivages 교육전문학교가 1996~97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중등학교에 배부한 안내서에 기록된 각 과정별 교과 내용과 요구되는 응시자의 자질을 발췌한 것이다. 여기서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란 입학전형에서 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 본 과정의 학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실패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Rivages 교육전문학교에서는 하급중등교사 과정을 다음과 같이 6개 학부 11개 전공으로 개설하였다.

- 문학부...프랑스어·역사전공, 프랑스어·도덕전공
- 수학부...수학·물리전공, 수학·경제전공
- 체육부...스포츠·여가지도전공
- 외국어부...영어·네덜란드어전공, 독일·네덜란드어전공, 영어·독일어전공
- 인문과학부...지리·역사·사회전공
- 자연과학부...생물·화학·지리전공, 생물·화학·물리전공

교과목 배정은 학부들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1학년과 2학년은 각각 연간 학기제로 29~31학점, 3학년은 11~13학점으로 모두 70~74학점을 이수한다. 우리 나라의 6개월 학기제로 환산하면 140~148학점이 되어 4년제 일반대학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수와 비슷하다. 이들 학점의 약 40%는 공통교과로서 교양·교직과목에, 약 60%는 전공교과에 할당된다. 공통교과의 학점 배당은 모든 학부 및 전공이 동일하며, 동일 학부에 속하는 전공들은 공통교과에서는 차이가 없고 전공교과 선택에서만 차이를 둔다.

다음의 <표 1>과 <표 2>는 중등학교에서 3학년까지의 지리교과를 담당하게될 인문과학부와 자연

벨지움의 중등학교 지리교육 내용과 교사양성제도

과학부의 교육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분야의 응시자에게는 벨지움과 유럽공동체 국가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도학적 지리지식을 요구한다. 학생들의

강의시간수에서 3개 전공교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를 차지한다. 인문과학부에서는 전공교과인 지리학, 역사, 사회과학이 1학년에서는 총 31시간 중 20시간, 2학년에서는 31시간중 16시간, 3학년에서는 13시간 중 8시간을 차지한다. 자연과학부에서는 각 학년별로 생물, 화학, 지리학이 이와 비슷한 비중을 점한다. 그래서 지리교과는 3년간 총 14시간을 이수하게 되는데, 이를 우리 나라의 6개월 학기제로 하면 28학점에 해당한다.

표 1. 인문과학부 역사·사회·지리전공의 교육과정

교과목	1년	2년	3년
철학	1	0.5	0.5
구술(말하기)	1	-	-
벨기에 국가기구	1	-	-
경제개념	-	0.5	0.5
문화생활	-	1	-
교육사	-	-	1
시청각교육	-	1	-
프랑스어 쓰기	2	1	-
정보화	1	1	-
교육심리	2	4	2
교수법	1	4	-
지리학	6	5	3
역사학	8	6	3
사회과학·경제학	6	5	2
도덕 또는 종교	2	2	1
합 계	31	31	13

자료 : Rivages 교육전문학교, 1997

표 2. 자연과학부 생물·화학·지리전공의 교육과정

교과목	1년	2년	3년
철학	1	0.5	0.5
구술(말하기)	1	-	-
벨기에 국가기구	1	-	-
경제개념	-	0.5	0.5
문화생활	-	1	-
교육사	-	-	1
시청각교육	-	1	-
프랑스어 쓰기	2	1	-
정보화	1	1	-
교육심리	2	4	2
교수법	1	4	-
생물학	6	6	3
화학	8	5	2
지리학	6	5	3
도덕 또는 종교	2	2	1
합 계	31	31	13

자료 : Rivages 교육전문학교, 1997

4) 교육실습과 실습지도교사제

교육전문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실습은 모든 과정이 동일한 패턴으로 조직된다. 유아학교교사 과정의 교육실습은 유아학교에서, 초등교사 과정의 교육실습은 초등학교에서 1학년은 2주간, 2학년은 4주간, 3학년은 2학기 15주간 실습하며, 매년 3주 이상 특별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가한다. 하급중등교사 과정의 교육실습은 1학년의 경우 유아학교,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하여 1주간씩 견학하고, 전공교과 지도와 관련한 교육심리 세미나에 1주간 참가한다. 2학년은 중등학교에서 2주간 참관실습과 수업지도실습을 하며, 3학년에는 2학기 15주간을 일반계, 기술계, 직업계 중등학교를 골고루 거치면서 학급관리와 수업지도를 실습한다. 이 외에도 매년 1~3주간 교직의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에 관한 보충교육을 받는다.

벨지움 교육부는 교생들의 교육실습을 지도하는 중등학교 현직 교사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 1991년부터 실습지도교사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전문학교에서는 각 과정별로 필요한 실습지도교사를 유아학교, 초등학교, 중등학교 현직교사 중에서 선발하여 주당 임금제로 5년간 채용하며 기간 만료 후에는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습지도교사제는 자격의 규정과 책임성 부여를 명확하게 정의하며 교육실습이 있는 기간에만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재정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6) 문제점

교육전문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종합대학의 교육에서 실패한 학생들이라 교사의 질적 문제가 우려된다. 교육전문학교에 입학하면 주당 30시간의 고된 수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이를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 학년말 시험에서 유급되는 학생들이 많아, 자격증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학생은 입학생의 1/3 정도이다. 또한 교육전문학교에서 양성하는 교사의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목들이 많다. 최근 5년간의 추세에서 수학·물리교사와 기술교사는 공급부족이며 그 외의 교과는 공급과잉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분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긴 하나, 벨지움의 교직계에도 교사의 여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현직교사들 중에서 여교사가 차지 비율은 유아학교 97%, 초등학교 80%, 중등학교 70%이며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4. 종합대학의 상급중등교사 양성과정

1) 종합대학의 일반 교육과정

벨지움의 종합대학은 전통적으로 철학·문학대학, 법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의과대학, 응용과학대학 등 5개 단과대학을 기본으로 구성되었으나, 최근에 와서 이들이 분화하거나 신설된 여러 단과대학들이 추가되었다. 필자가 체류하였던 Liège 대학의 경우에도 위의 5개 단과대학 외에 사회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어문학대학, 심리·교육학대학이 추가되었다. 벨지움의 대학생수는 약 12만 명인데 프랑코폰 공동체와 플라망 공동체가 비슷한 규모이다. 프랑코폰 공동체의 대표적인 대학은 Louvain 대학, Bruxelles 대학, Liège 대학이며, 이들 대학의 학생수는 15,000~18,000명이다. 벨지움 교육부는 최근에 대학운영과 학술연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대학의 다양한 학문들을 다음과 같이 3개의 계열과 22개의 전공으로 구분하였다.

- 인문·사회과학계열...종교학, 철학, 역사학, 어문학, 예술·고고학, 법학, 범죄학, 심리학, 교육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 과학계열...자연과학, 응용과학, 농학 및 생명

공학.

- 보건·의학계열...의학, 치의학, 수의학, 공중보건학, 약학, 체육학, 재활의학.

벨지움의 대학교육과정은 제1단계인 1~2학년은 후보과정, 제2단계인 3~4학년은 학사과정이며, 그 이후의 석사 및 박사과정으로 구분된다.

제1단계 후보과정(candidat)의 수학기간은 2년이며 전공학과 진급에 필요한 기초교육자격증을 획득한다. 입학조건은 중등교육을 마치고 상급중등교육 수료증이나 고등교육진학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은 국내 모든 대학의 어떤 학과이건 자유롭게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입학시험은 없다. 다만 모국어가 다른 공동체의 대학을 선택할 경우에는 어학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등학교에서 수학한 교육과정과 자신의 학력 수준을 고려하여 학과 선택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학업실패(유급 또는 퇴학)를 경험할 위험이 있다. 그 이유는 후보과정 기간에는 수강해야 할 교과목들이 많아 주당 30~32시간의 강의를 받으며 입학 초부터 수회에 걸친 시험을 치루고 성적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은 1학년말에 대량으로 탈락되기 때문이다.

제2단계 학사과정(licencié)의 수학기간은 2년이며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장 광범위하게 부여 받는 과정이다. 학사과정을 분류하면, 철학, 역사학, 고전문학, 로마문학, 독일문학, 법학, 회계학, 과학, 의학, 수의학, 치의학 등으로 구분된다. 이 단계에서 의사, 약사, 공학기사, 농업기사, 상급중등교사 등의 자격증을 획득하는데, 자격증에 따라 보다 긴 수학기간을 필요로 하는 분야도 있다. 상급중등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이 단계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2단계 말에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학생들은 논문심사일 15일 전까지 논문을 제출하고 3~5명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 앞에서 15~20분간 발표하고 15~20분간 심사위원의 질문에 대답한다. 일반적으로 학년말인 6월에 실시되는 논문심사에서 30~50%의 학생들만이 합격하며, 불합격자는 내용을 보완하여 여름 바캉스가 끝나고 9월 중순에 1회의 재심사 기회가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논문심사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며 약 20%의 학생들은 학위 취득이 1~2년간

벨지움의 중등학교 지리교육 내용과 교사양성제도

늦어지고 10% 내외의 학생들은 결국 학위 취득에 실패한다고 한다.

2) 교사양성과정의 조직

벨지움의 각 종합대학은 공동체 교육부와의 협조로 중등교사양성 업무를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교직과정부(CIFEN)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 부처는 공동체 교육부, 공립 및 사립 중등학교, 대학행정본부, 관련 학과의 교수법 담당 교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교사양성의 질을 높이고 교사자격증 취득자의 취업을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교사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대학의 교직과정부에서 매년 개설하는 상급중등교사과정에 등록하여, 일반 교직과목과 전공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교육실습을 마친 후 학년말에 공개수업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해당 전공의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교직과목 이수는 학사학위 과정과 같은 기간에 이수할 수 있으나 대부분 학생들은 4학년 때 집중적으로 이수한다. 교사양성과정에 등록하는 수강생은 별도의 등록비(1997~98년의 경우 미화 250달러 정도)를 납부하며, 이 기간에 취득한 학점은 실습의 경우 3년간, 강의는 2년간 교사자격증 신청에 유효하다.

3) 교육내용

다음은 Liège 대학의 교직과정부에서 1997~98학년도에 개설한 상급중등교사과정의 운영 내용으로, 수강생들이 이수해야 할 강의와 실습은 다음과 같다.

- 교육심리...강의 20시간
- 경험교육...강의 15시간
- 교육제도 분석...강의 15시간
- 일반교수법 및 학습관리...강의 15시간
- 전공교수법...강의 15시간, 실습 60시간
- 관찰실습...실습 10시간(1일간)
- 책임수업실습...수업 20시간(2주간)
- 교육문제 세미나...강의 20시간(2일간)
- 공개수업...2개 주제의 수업발표 및 심사

(1) 일반 교직과목

교사양성과정의 모든 수강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일반 교직과목은 교육심리, 경험교육, 교육제도분석, 일반교수법 및 학습관리 등 4개 교과이며, 이들은 명칭은 동일하지만 수강생들을 대학별로 또는 유사 학과들끼리 묶어 강의반을 편성하고 교수와 교과 내용을 달리한다.

(2) 전공교수법

전공 교과에 대한 교수법 강의는 학과 교수가 담당하고, 이와 병행해서 중등학교 수업지도에 필요한 교재연구, 학습지도안 작성, 학습도구 사용법, 학습자료 제작 등을 실습하는데, 이 실습 분야는 양성과정부에서 교수법 담당교수의 추천을 받아 실습지도교사로 임용한 중등학교 현직 교사가 담당한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사를 1명씩 임용하고, 학생들을 2개조로 편성하여 교대로 실습하며 조별 인원은 보통 10명 이하이다. 지리과 학생들의 실습에서는 항공사진 판독, 인터넷 수업, 슬라이드 제작과 활용, 도표와 그래프 작성, 지도와 스케치 작성, 비디오 제작과 설명에 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이러한 전공지도법의 강의와 실습은 10월초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12월말까지는 완료함으로써 2월에 시작되는 수강생들의 책임수업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관찰실습

관찰실습은 전공교수법 담당 교수의 주관 하에 실습지도교사의 지도로 10월초에 1일간(10시간) 중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의 시설과 환경, 전공 교과 수업과 학생활동을 관찰한다. 이를 위하여 실습생들은 미리 배부 받은 관찰항목별로 내용을 기록하여 지도교사에게 제출하고 이에 대한 세미나를 갖는다. 관찰항목은 아래와 같다.

- 학생의 태도...경청, 반응, 기억, 연습, 관찰, 연구, 판단, 표현, 응용 등.
- 교사의 태도...학생과의 접촉, 구술과 판서, 리듬과 음성, 복장, 활발성 등.
- 학습자료...지도, 슬라이드, 비디오, 통계, 그래프, 신문, 컴퓨터 등.
- 학습형태...개별학습, 그룹학습, 전체학습, 강의

경청 등.

- 교실환경...의자, 그림, 학습자료, 교사의 공간 활용 등.

(4) 책임수업 실습

책임수업이란 학생들이 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수업을 현직 교사와 같이 중등 학생들의 수업을 책임지고 지도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이를 위하여 교직과정부는 전공교수법 담당 교수의 추천을 받은 중등학교 현직 교사를 실습지도교사로 의뢰하고 교생 1명씩을 담당시킨다. 책임수업은 2월초부터 2주간에 걸쳐 15시간의 수업준비와 20시간의 책임수업을 실시한다. 수업준비 15시간은 교생이 작성한 학습지도안과 학습자료에 대하여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는 시간을 말한다. 교생은 10개 주제에 대한 수업을 주제당 2시간씩 20시간의 수업을 실시한다. 벨지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35~40시간의 범위이다. 중등학교 현직 교사의 근로시간을 주당 20시간의 수업과 이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15시간을 합쳐 35시간으로 계산한 것이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일 경우 학년당 평균 2개 학급이다. 이와 같이 교생의 책임수업 시간수 책정은 가능하면 현직 교사의 근무조건과 비슷한 조건에서 훈련시키기 위한 조치인 것 같다.

실습지도교사는 교생의 수업을 참관하면서 매 수업마다 수업평가서를 작성하고 실습이 끝나면 이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대학에 제출한다. 교생의 수업평가는 교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수업준비, 학습자료, 학습지도안, 동기유발, 교생의 언어와 태도, 학생활동, 질문요령, 흑판사용, 수업의 리듬 등 10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교생들의 수업실습은 현직 교사들처럼 철저히 개별적이며, 전적으로 지도교사와의 협의에만 의거한다. 즉 상급중등교사는 학급담당업무를 비롯한 일체의 잡무가 없기 때문에 교생은 수업 있는 시간과 별도로 약속한 시간에만 지도교사와 개별적으로 만나 협의하고 수업하고 지도·평가받을 수 있다. 한편 대학 각 학과의 교수법 담당 교수들은 교육실습 기간 중 가능하면 모든 교생들의 실습학교를 순회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현장에서 지도한다.

(5) 교육문제 세미나

현대 사회에서 학교교육이 처하고 있는 문제점과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총장, 교육부 장관, 시장, 특수학교 책임자 등 각계 인사들의 강연을 청취하는 집단 세미나이며 학기초에 주말을 이용하여 2일간 20시간 참석한다.

(6) 공개수업 심사

공개수업 심사는 교사 지망생들이 양성과정을 모두 끝내고 교사로서의 자질이 갖추어졌는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자격증 부여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교직과정부는 응시자들의 심사를 위하여 전공교수법 담당 교수를 포함하는 심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심사위원회는 심사 일주일 전에 응시자에게 중등학교 상급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2개의 수업주제를 부과한다. 응시자는 주제별로 각 1~2시간의 수업에 해당하는 학습지도안을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방법 및 절차, 학습자료의 순서로 작성하여 심사 하루 전에 제출하고, 3명의 심사위원 앞에서 주제별로 10~15분간 발표하며 15~20분간 심사위원의 질문에 대답한다. 여기서 탈락하는 응시자에게는 1개월 후에 1회에 한하여 재발표의 기회가 부여된다.

4) 교사임용과 교직원경

벨지움의 교직사회는 각급 학교별로 교사의 임용기준과 수업시수를 포함한 교사의 근무환경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의 고등학교교사에 해당하는 벨지움 상급중등교사의 경우를 공립학교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임시교사와 정교사

벨지움의 중등교사는 모두 처음에는 계약제 임시교사로 임용된다. 임시교사는 모집인원을 결정하여 선발하지 않고 공동체 교육부가 지원자의 임용신청서를 받아 두었다가 교사 결원이 생기는 데로 계약제 임시교사로 채용하며, 다음 학년도에도 교사 결원이 있으면 재계약 될 수 있다. 임용희망자는 50세 미만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지방행정청에 구직 등록을 하고 그 증명서와 함께 공동체 교

벨지움의 중등학교 지리교육 내용과 교사양성제도

육부에 입시교사 임용신청서를 접수시킨다. 교과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용신청 후 1~2년 이내에 입시교사 발령을 받는다. 입시교사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이며 주당 20시간의 수업을 하게 된다. 근무경력이 3년을 넘어서면 계약기간은 다소 늘어나 2~3년 단위, 어떤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입시교사는 운이 좋으면 수년간 계속하여 같은 학교에서 20시간을 전담할 수 있다. 그러나 벨지움에는 촌락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소규모 학교들이 많아서, 여러 학교의 자투리 수업시간을 모아 20시간이 되면 입시교사 1명을 배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입시교사는 여러 학교를 순회근무하며 근무지 학교가 매년 변경된다. 운이 나쁠 경우에는 재계약이 되지 않아 실직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현재 벨지움의 공립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약 30%가 입시교사이다. 대체로 35세 이하의 젊은 교사들은 입시교사라고 보면 된다. 대부분의 입시교사들과 교직원망자들은 이를 두고 국가가 교사의 노조활동에 대처하고 퇴직연금이나 보험료 불입으로 지불되는 각종 경비를 줄이기 위해 많은 정교사 자리를 입시교사로 대체한다고 비난한다. 정교사가 되기까지는 상당히 지루하고 고된 입시교사 생활을 해야 한다. 정교사로 임용되려면 입시교사 근무 경력이 많아야 하고, 전년도 근무지 학교장이나 장학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교사로 임용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에서는 5~7년 정도이지만, 공립학교에서는 13~15년 정도 걸린다. 일단 정교사로 임용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학교에서 정년(과거 65세였으나 1983년부터 60세로 단축)까지 안정된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임금 인상은 없으나 퇴직연금이나 보험료 불입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2) 보수와 승진

1997년 현재 벨지움 중등학교 초임 입시교사의 월 보수는 미화로 환산하여 약 1,500달러이며 매년 일정 비율로 약간씩 인상되는데, 이 수준은 대졸학력의 타 직종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어서 교직의 여성화가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벨지움의 교사들은 입시교사와 정교사 외에는 별도의 정기적인 승

진이 없다. 학교장은 자격시험을 거쳐 계약제로 임용되는데, 이들 중에는 교사출신도 있으나 전체 학교장 수의 30% 이하이며 나머지는 행정직이나 관리직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 학교장을 보좌하는 행정책임자와 수업책임자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 해당 학교의 정교사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여 일정 기간 보직을 맡게 되는데 학교장 부재시 업무를 대행한다.

(3) 수업시수

중등교사의 책임수업시간은 주당 20시간이다. 다만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과 수당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22시간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 책임시수는 근로기준법에서의 임금 지불과 관계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직원이 수업시간에 교사의 근무 여부를 확인한다. 같은 학교에서 맡을 수 있는 수업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방과후에 성적부진 학생을 지도하거나 특별히 조직된 학생들을 지도하여 보충하며, 그래도 부족할 때는 인근 타 학교에서 보충해야 한다. 그 대신 교사는 책임수업시간 외에는 근무할 의무가 없다. 학생들의 결석이나 행동 관리는 교직원의 약 15~20%를 차지하는 교육행정사가 담당한다. 한편 중등학교에는 특별실 뿐만 아니라 일반교실에도 비디오, TV, OHP, 실물환등기, 슬라이드, 벽지도 등 상당히 값비싼 학습기자재들이 설비되어 있다. 그래서 교사들은 열쇠를 지참하여 수업 때만 개방한다. 교사들은 매 학년도 초에 사용하게 될 교실의 열쇠를 행정본부로부터 지급 받고 학년도 말이 되면 이를 반납한다.

(4) 교사실

벨지움의 상급중등학교에서는 일반 교사들의 경우 연구활동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학교에 교사실이 있지만 우리 나라 고등학교의 교무실과는 전연 다르다. 교사 개인별로 배당된 책상이나 비품은 없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탁자 15~20개와 의자들만 비치해 둔다. 수업 시작 몇 분 전에 와서 커피를 마시며 수업 종이 나기를 기다리는 장소로 이용된다. 우리 나라의 대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사대기실과 흡사하다. 상급중등교사

들은 수업 외에는 맡은 업무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수업이 다 끝나면 바로 퇴근한다. 교사실은 동료 교사들과의 만남이나 교과협의회를 비롯한 회의장소로도 이용된다. 학교에 연구실이 없기 때문에 교사실에 들리지 않고 수업시간에 맞추어 출근하여 곧장 교실로 가서 수업하고 끝나면 바로 퇴근하는 교사들도 많다. 대부분 교사들은 대학이나 시내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집에서 연구한다. 그러나 지리교사를 비롯한 음악교사, 미술교사, 과학교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실험실이나 특별교실이 학교에 마련되어 있고 그 안에 교사를 위한 공간이 있어 학교에서 연구가 가능하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프랑코폰 공동체를 사례로 벨지움의 지리교육 내용과 교사양성제도를 고찰하였는데 특히 다음의 내용들이 주목되며, 이들 중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의 중등학교 지리교육과 교사양성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벨지움의 중등학교는 초기부터 진화희망 학생들과 취업희망 학생들을 엄격히 구분하고 그에 적절한 과정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취업반 학생들이며 졸업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진학반 학생들은 계열별로 차별화된 심화교육을 받는다. 대학진학에서는 선발시험 없이 학생들의 지원만으로 입학하는데도 대학별 학과별 학생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학업성적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과감하게 탈락시키는 유급제도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 벨지움의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의 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진학지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기술교육,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진학 계열 및 학과 선택, 그리고 입학 후 성실한 수학태도의 확립을 위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벨지움의 중등학교 지리교육은 제1단계 2년간은 주당 2시간씩 생활지리로 구성되는 내용의 환경교육, 제2단계 2년간은 주당 1시간씩 유럽과 러시아에 중점을 두는 세계지역지리, 제3단계 2년간은 주당 1시간씩 계통적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를 학습하

는데, 이러한 학습내용 체계는 학생들의 지적수준 능력을 고려하여 조직된 것 같고 최근 수업 시간수가 축소되고 있어 염려된다. 한편 사립학교에서는 전 학년에 걸쳐 주당 2시간씩의 강도 높은 지리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지리교육이 통합 사회과에 흡수되어 독자성이 없어지고 학습시간도 축소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벨지움의 지리교육은 중등교육에서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갖는 독립교과로 자리잡고 있다고 판단된다.

벨지움의 지리수업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교과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교과서가 없어지고 교사가 직접 텍스트를 준비하여 학습지도에 임하고 있어 교사의 능력에 따라 수업의 질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수업형태는 학생 중심의 탐구식 학습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학급당 학생수가 적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학생들의 학력수준은 우리나라 학생들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교재와 학습매체의 사용을 통해 교사의 학습지도 재량권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 증진을 위한 탐구수업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여기에 벨지움의 사례가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벨지움의 하급중등교사는 교육전문학교에서 복수전공교사로 양성되는데 지리교사는 생물·화학·지리교사 또는 역사·사회·지리교사의 유형으로 양성되며, 보다 높은 수준의 상급중등교사는 종합대학에서 단일전공교사로 양성된다. 교사후보생들의 졸업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포함한 외형적 교육과정으로 보아 벨지움의 상급중등교사는 우리나라의 중등교사에 비해 높은 질적 수준에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범대학에 도입한 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제도에 의해 배출될 공통사회·지리자격증 교사는 벨지움에서는 하급중등교사에 해당되어 고등학교에는 배치될 수 없다는 계산이기 때문이다.

벨지움의 교사양성기관에서는 학생들의 교육실습을 위하여 중등학교 현직교사를 공식적으로 고용하여 실습지도에 임하게 하고 교생들의 책임수업과 평가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실습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과 교수들은 교사

벨지움의 중등학교 지리교육 내용과 교사양성제도

자격 취득을 위한 공개수업 심사에서 합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사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벨지움의 중등교사는 주당 20시간의 책임수업 외에는 다른 잡무가 없어 교재 연구와 수업에만 열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할 때, 우리 나라 사범교육에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실습제도를 도입하고 교사자격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중등교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향상 논란이 되고 있는 교사들의 잡무를 경감시키는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벨지움의 교직사회에서는 중등학교 초임 교사가 정교사로 임용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 임시교사 생활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이며 보수에서도 높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등 인기 있는 직종이 못되고 있다. 더구나 교육전문학교에는 낮은 학력수준의 학생들이 입학하는데도 이들에게 2~3개 교과를 전공시키고 있어 교과목 지도의 전문성 결여가 우려되는 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발견된다.

이상과 같은 벨지움 중등학교의 지리교육 내용과 교사양성제도의 특성들은 프랑스와 영국의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보다 포괄적으로는 유럽공동체 국가들의 일반적 추세를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유럽공동체의 교육부장관 회의에서는 정기적으로 회원국들의 교육개혁 동향에 관한 보고회를 갖고 그 내용을 여러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어, 특정 국가가 다른 대부분의 회원국들과는 동떨어진 교육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文獻

De-Vroede M. et al., 1979, *L'enseignement*

populaire en Belgique au XIX siècle, Numéro spécial de la Revue belge d'histoire contemporaine, X.

De-Vroede M. et al., 1988, *Bibliographie de l'histoire de l'enseignement préscolaire, primaire, normal et spécial en Belgique, 1774~1986*, Louvain.

Janssens C., 1981, *Enseigner aujourd'hui, Aspects pratiques*, Boeck, Bruxelles.

Ministry of Education, 1990, *Educational Development in the French-speaking Community of Belgium*, Brussel.

Ministère de l'Éducation, 1996, *Le système éducatif en Communauté Française de Belgique*, Bruxelles.

Ministère de l'Éducation, 1984, *Le Mouvement Éducatif en Belgique, 1981~1983*, Bruxelles.

Minten L. et al., 1995, *Les statistiques de l'enseignement en Belgique*, Vol.4, Bruxelles, 1991~1995.

OECD, 1969, *Étude sur les enseignants, Monographies Nationales - Germany, Belgique, United Kingdom*, Direction des Affaires Scientifiques.

OECD, 1972, *Classification des systèmes d'enseignement*, Paris.

Raabe J., 1993, *European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ions*, Euro Mecum.

Schultze W., 1969, *Le système scolaire en Europe*, Beltz, Berlin.

Université de Liège, 1997, *Programme des cours*, Edition ULG.

The Secondary School Education of Geography and the System of Teacher Training in Belgium

—Focused on the Case of Francophone Community—

Kwak, Chul-hong*

Summary

This study aims to make a research on the secondary school education of geography and the system of teacher training in Belgium, focused on the case of Francophone Community. What has been made clear by this research can be summed up as follows.

The first two years of the secondary school offer two hours of 'environment education', per week, which can be categorized into the learning of living geography, in that at this stage students learn how to observe the geographic phenomena in their daily life and pigeonhole them. The two years of the second stage of the secondary school offer one hour of 'world geography' which actually is focused on the district of Europe and Russia. The two years of the third stage of the secondary school offer an advanced course of geography which aims to teach systematically the physical geography and the human geography.

A remarkable change in geographic education in Belgium is that in the wake of the Revision Act of the secondary school education, textbooks were replaced by other teaching manuals adapted to the regional condition by the teachers. This may result in a wide gap of achievements in geography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educational establishments. Another notable change is that the stress of geographic education tends to be placed on the ability of acquiring practical geographic knowledge rather than the geographic information itself. And it is also another marked tendency that most learning activities in geography class are conducted on the basis of student-centered and the method of investigation.

Teachers of the lower secondary schools in Belgium are trained in the School of Education as multi-major teachers, such as a teacher for biology-chemistry-geography or a teacher for history-sociology-geography. Teachers of the higher secondary school education are trained in the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in universities as solo-major teachers in that they are required to know more deeply to teach an advanced course of geography in the higher secondary schools. To improve the teacher education many folds of policies are adopted. One is that many in-service teachers are officially put into services of guiding and teaching teacher training. Another is that faculty members in charge of teacher training course are trying to level up the qualifications of teachers by rigorous disciplining.

Key words : Environment education, Multi-majors teacher, Education program.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Researcher, Institute for the Secondary School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